

8. 주물공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

성별 남 나이 55세 직종 주물공 업무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김OO은 25세 때인 1977년부터 주물 작업을 하던 중, 2006년 5월 D대 OO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는 25세 때인 1977년부터 79년 까지 OO주물에서 주물 공으로 근무하였다. OO주물에서는 배관의 이음새 부분을 생산했으며, 조형, 주입, 탈사 과정을 근로자 개인이 일관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한다. 1979년부터 1983년까지는 OO중기에서 근무하였고 약 1년간 기차 바퀴를 만들기 위해 쇠봉을 선반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고, 약 1년간은 압연으로 기차 레일을 뽑아내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1983년 OO기계에 입사하여 동일회사에 2006년 05월까지 주물공으로 근무하였다. OO기계는 배 엔진 부품과 사출기 부품을 주조하는 것이 주요 작업이며, 롤러 등 일부 품목을 주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다. 근로자의 조형 공정은, 주물사 분진(유리규산)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2003년 상반기 3.4735 mg/m³(노출기준 2 mg/m³), 하반기 2.5605 mg/m³ 등 1999-2003년 까지 조형, 탈사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김OO은 2004-2005년 시행한 특수건강진단에서는 진폐의증을 진단받았다. 류마티스관절염이 있어 D대학병원을 다니던 중 2006년 등산할 때 호흡시 쉼쉼거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CT,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여 폐암진단을 받았다. 폐암치료를 위해 Y대학병원을 방문하였고 2006년 5월 30일 좌측폐절제술을 받았으며 편평상피세포암과 선암(double primary, squamous cell ca T1N2M0, adenoca T1N0M0)을 최종 진단 받았다.

4.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김OO은

- ① 폐암으로 확진받았는데 약 22갑년의 흡연력이 있으나,
- ② 약 25년간의 주물 작업으로 폐암 유발 물질인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 ③ 2004-2005년 흉부방사선사진상 진폐의증 소견이 있으며,
- ④ 약 25년간의 주물 작업으로 폐암 유발 물질인 크롬, 니켈,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으므로,

근로자 김OO의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